

http://dx.doi.org/10.17703/JCCT.2018.4.2.43

JCCT 2018-5-6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 of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ed Migrant Women

송미숙* , 박경민**

Mi-Sook Song*, Kyung-Min Park**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경험의 의미와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15일부터 7월13일까지 9명씩 2개의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한 집단 당 1회씩 시행하였다. 1회당 인터뷰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수집된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범주와 11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도출되었다. 본질적 구조로는 ‘물과 기름’, ‘자녀교육에 대한 욕심’, ‘설상가상’, ‘해결의 길을 따라 튼튼해지는 가족건강’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가족건강성, 경험, 포커스 그룹, 질적 연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여성.

Abstract In this paper,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ed Migrant Women. The study was conducted on 18 immigrant wome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two focus groups of nine from May 15 to July 13, 2017,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e time per group. The interview took about one and a half hours to two and a half hours per session. The data collected by the Focus Group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Research has resulted in four categories and a set of 11 theme clusters. The essential structures include "water and oil", "greed for children's education", "to make matters worse " and "family strength following the resolution path getting stronger". In conclusion, understanding the family strength experi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could be used as a basic resource for establishing policies to improve the family strength of married immigrant women.

Key words : Married Migrant Women, Family Strengths, Experience, Focus group, Qualitative research,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Wome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혼인기피, 성비불균형

의 심화, 사회전체의 고학력화 추세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초혼연령의 상승과 저 출산 등이 결합하여 결혼시장에 혼란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결혼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 어촌지역이나 도시 저소득층 남성

* 정희원,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제1저자)

** 정희원,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2월 17일, 수정완료일: 2018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10일

Received: February 17, 2018 / Revised: March 15, 2018

Accepted: April 10, 2018

**Corresponding Author: kmp@kmu.ac.kr

Dept. of Nursing, Kemyung University, Korea

의 혼인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1].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다문화 혼인은 21,709건이며, 이는 전체 혼인에서 7.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결혼한 경우는 14,262건으로 약 65.7%를 차지하고 있다[2]. 이는 과거 단일 민족임을 내세웠던 우리나라도 세계화라는 흐름과 함께 빠르게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의 주요 구성원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 한편, 2016년 다문화 이혼은 10,631건으로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로 나타났다. 2015년 이혼 및 별거 사유는 성격 차이가 45.3%로 가장 많고, 경제적 무능력, 외도 등 애정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나 음주·도박의 순이었다[4]. 이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이혼 사유가 한국인 일반가정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대가 초기 결혼 이민자의 문화적응 단계에서 벗어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반적 가족으로써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3].

가족의 건강성이란 정서적 유대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잘 유지하는 가족이 가족 내에서의 감정, 사랑, 경계, 의식, 패러다임, 규칙, 일상생활, 의사결정, 자원관리와 같은 가족 과정과 관계를 기능적으로 실행하여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고 가족이라는 체계로서 각 가족의 상태나 생활주기 등에 맞는 적절한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5].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전체 한국가정 이혼율의 9.9%나 차지하는 것은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의 건강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6]. 또한 낮은 수준의 가족 건강성은 그 가족 구성원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Seo[7]의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그들의 환경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건강성 수준과 삶의 질은 자녀와 남편 등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8].

이에 따라 2000년 후반부터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데 Choi[9]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이 주요변인으로 나타났고, Kim 등[6]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을, Kim & Choi[10]의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도를, Choi[9]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종교유무, 남편의 직업, 월수입정도, 결혼경로,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이 연구 결과로 제시되었다. 또한 Park[1]은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했고, Lee 등[11]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직접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동안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변인과 더불어 어떠한 가족관계 특성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두어 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현재까지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속한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질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만족스런 가족경험과 안정적인 결혼생활의 유지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특별한 경험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2].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심도 있게 이해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건강성에 관한 경험의 구조를 파악하여 서술함으로써 경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를 바탕으로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건강성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가족건강성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고 의미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Colaizzi[13]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였고,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집중된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였다[14]. Colaizzi [13]의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의 생생한 경험을 참여자의 개인적 속성보다 경험들 전체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둔 연구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경험 속에 내재된 의미구조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되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하였으며 K도 G시 소재하는 다문화지원센터와 교회의 외국인지원센터 대표를 만나 참여자 18명을 소개받았다. 연령은 36세부터 51세 사이였고, 결혼 이후 한국거주기간은 3년에서 13년이었다. 참여자들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11명, 중국2명, 필리핀2명, 캄보디아2명, 태국1명이었다. 참여자들의 자녀는 1명에서 3명이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15일부터 7월13일까지 한 집단 당 1회씩 시행하였으며 1회당 인터뷰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9명씩 2개의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차 인터뷰 후 분석결과를 통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전화로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전사는 인터뷰 내용의 생생한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인터뷰 당일에 시작하여 3일안에 완료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시작 질문 : 인터뷰 전에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 저보고자 합니다. 각자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도입 질문 : 가족건강성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주요 질문 : 가족의 건강성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주요 질문: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마무리 질문 :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간략하

게 요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추가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윤리적 고려

연구시작 전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와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면담참여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면담은 녹음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학회지에 출판될 것임도 알려주었다. 연구 참여로 인한 사례금은 3만원 상당으로 각각 지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하며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경험이라는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인 Colaizzi[13]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면담녹음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를 전사하였고, 면담기록을 수차례 읽어 조사하려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단어, 문장이나 구를 찾았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구절로부터 문장의 맥락을 숙고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여 이를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들을 참여자의 반응과 느낌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 및 주제모음으로 범주화하고 이들 주제가 원 자료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지, 주제들 간에 차별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결과를 본질적 주제에 따라 그 체험의 의미중심으로 하나의 기술로 통합하고 경험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 18명에게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교수 1인에게 검토 받아 원 자료와의 일치여부를 살펴며 도출된 주제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6.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교과목을 이수하고, 대한 질적 연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특강 및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질적 세미나와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현상학 등 질적 연구 전반에 대한 탐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질적 연구 논문게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외국인 무료진료센터에서 활력증후를 측정하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건강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7.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 [15]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따라 질적 연구결과의 엄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엄밀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양적연구의 내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창조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반추한 후 참여자의 원래진술과의 일치 도를 확인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면서 연구자 2인이 서로 검토하였다. 적용성은 양적 연구의 외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일관성은 유사한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일관된 진술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서 발견된 주제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위해 지속적 비교방법을 실시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와 토론을 통해 이를 평가하였다.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중립성은 편견을 배제한 중립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괄호 치기'를 통해 연구자의 선 이해나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문헌고찰을 하지 않았다.

III. 연구결과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경험은 4개 범주와 11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으로 도출되었

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경험의 본질적 구조로는 '물과 기름', '자녀교육에 대한 욕심', '설상가상', '해결의 길을 따라 튼튼해지는 가족건강', 등으로 도출되었다 (Table 1).

1. 물과 기름

'물과 기름'에는 '고통스런 의사소통', '서로 다른 세상의 삶으로 가족 적응이 힘들어짐' 등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참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욕설을 섞어가며 대화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이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가족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참여자들은 언어의 문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면서 가족건강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듣자마자 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 지르지 말고.

진짜 답답해요.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대답도 안하고. 어디 가버려요. 자기는 모른 척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도 티비 보고 다른데 돌리고. 진짜 답답해요.

다른 나라 생활이 다른데 시어머니 같이 사는데 저한테 생활, 언어 안 가르쳐 줘요. 잔소리만 해요.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알면서도 표현을 잘못하겠어요.

혹시나 내 말을 이렇게 얘기해도 맞나 아니면 애 더 상처 주나 두려워. 막 말해도 되나.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의사소통이 되어야 내가 하고 싶은 말 전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의사소통이에요.

저희도 오기 전에 책으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집집마다 풍습이 다르니까 좀 얘기해주면 여기 이집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는데 말 안 해주고 잔소리만하고.

2. 자녀교육에 대한 욕심

자녀교육에 대한 욕심'에는 '육아방법의 견해차이로 멀어지는 가족관계', '커지는 책임감' 등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모국과의 자녀 양육방법차이

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할 경우 책임이 참여자에게 전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Table 1. Theme Clusters of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ed Migrant Women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Oil and Water	Distressing stress	Conversation with Swear Words
		Neglect from Family
		Indifference
	Adaptation of Family Getting Harder Due to the Background Difference	Ignorance of Way of Communication
		Fight against Cultural Difference
		Not Informing the Cultural Difference
Greed for Children's Education	Relationship Falling Apart Due to the Disagreement with the Difference in Parenting	Having a Difficulty in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s Method of Parenting and Homeland's
		The Husband Indifferent to Children's Education
	Growing Responsibilities	Burden on Parenting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Fear of Poor Parenting
To make matters worse	Money: The Reason for Disharmony	Frequent Fighting over Economic Difficulties
		Stress from lack of Money
		Confidence from Money
	The Trap of Distrust	Being Cast Down
		Sense of Betrayal
		Not having Freedom
	Disconnected Home	Taking Care of Parents Making Feel Uneasy
		Neglect of one's family
		Desire to be seen well of to one's Family
Family Strength following the resolution path getting stronger	Introspection	Resolution to Fix Myself First
		Resolution to Make the Effort
		Resolution to Do Everything Hard
	Companion	Hope for the Help with Housework
		Hope for Respect and Trust
		Hope for the husband to put on her shoe
	Escape	Relieving Stress by Calling Up with One's Mother
		Finding Escape Ways While Working
	Need for the Institutional Help	Need for Programs to promote Family Strengths

지금 18개월인데 애기가 이유식 먹었을 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맨날 시어머니나 시누이 전화 와서 언니 요즘 애기 18개월이면 이유식 먹지 말고 그냥 밥 해 먹여. 그래도 전화 와서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어떻게 애기는 지금 이유식 먹는데 맛도 이가 많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나한테 어떡하라고.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도 속상하고. 문제는 애기하면 서로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냥 알겠어, 그냥 내가 노력할게 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알려주면 좋겠네.

베트남에서 애 키우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애 키우는 거

랑 달라요. 한국은 너무나 몇 개월 때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남편도 관심이 없고, 나는 욕심이 있고.....

저희도 애들 잘 키우면 다행인데 또 비뚤어지면 다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 드니까 두려워요. 잘 되고 잘 키웠다 정말 훌륭하다 소리 들으면 좋은데 잘 못 키우면 너 때 문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3. 설상가상

‘설상가상’에는 ‘불화의 원인이 되는 돈’, ‘넘치는 불신의 올가미’, ‘고리 끊긴 친정’ 등 3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험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져서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김으로서 참여자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벌어야지 자식을 줌... 어떻게 말해야하나? 먹는 거, 입는 거, 공부시키는 거 돈 들잖아요.
음... 경제적인 걸 해결해서. 그러면 가족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돈 문제가 걸리면 말다툼이 안생길수가 없어요. 또 항상 돈이 문제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내가 돈 벌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보통 스트레스 덜 쌓여요.

우리가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니고 믿음 하나 갖고 서로 믿고 왔는데 안 믿어 주니까. 우리는 서로 믿는데 그쪽에서 자꾸 의심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회 안주고. 사회생활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너 못해. 기회 안주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간혀 있는 거 예요.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다 해주니까 우리가 더 늦게 배우고 한국말도 더 늦게 배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간혀 있는 거 느끼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나쁜 마음 아닌데, 우리 안 받으니까 우리가 배신감 느껴지는 거지. 다른 마음 생각하고 힘들고 그런 거 같아요.

밖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권, 신분증, 뭐 이런 거 남편이 다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냥 아무 말도 안했는데 애 생기면 괜찮겠지 하고 해도 애 생겨도 안 보내요 밖에.

친정에 돈을 보내주려 해도 눈치가 많이 보이고 뭔가 의심을 하고 자꾸. 큰 거를 주는 건가 싶어서.

시 엄마가 너는 친정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만

잘해라 이래요.

사실 뭐 한국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친정식구들한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돈도 많이 보내주고 싶고 뭐 이렇지만 또 와서 보니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 그게 마음이 아파요.

4. 해결의 길을 따라 튼튼해지는 가족건강

‘해결의 길을 따라 튼튼해지는 가족건강’에는 ‘자기성찰’, ‘같이 가는 길’, ‘탈출구’,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함’ 등 4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해주시기를 바라고 가사 일을 분담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자가 먼저 부족한 점을 고치고 가족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하는 자기성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애기 키우는 거 때문에 힘들어요.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안 도와줘요. 말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같이 하는데 안 도와줘. 매일 잔소리해.

서로 들어 화나는 일 생기면 그냥 화내지 말고 입장도 한번 바꿔보고 생각도 서로 들어보고했으면 좋겠어요.

저 힘들 때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요. 다 이야기하고 다 풀어요.

일하러 가는 게 돈벌러가는 것도 있지만 친구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저에겐 탈출구예요

가족들이 회사 다니잖아요. 둘이 같이 있는 시간 많이 없어요. 일요일밖에 없고 같이 있을 시간 필요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스포츠 그룹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부부 다문화 스포츠 그룹. 부부같이 하고 다른 부부도 같이 있는. 주말에 활동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축구, 테니스, 탁구.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는.

저도 부부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화안하잖아요. 거기 가서 대화도 하고.....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그 경험의 구조를 확인, 서술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 참여자의 가족건강성 경험은 ‘물과 기름’, ‘자녀교육에 대한 욕심’, ‘설상가상’, ‘해결의 길을 따라 튼튼해지는 가족건강’의 4개의 범주와 11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 및 30개의 주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주 ‘물과 기름’에는 ‘고통스런 의사소통’, ‘서로 다른 세상의 삶으로 가족 적응이 힘들어짐’ 등 2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경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im 등[16]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문제(22.5%), 경제문제(21.1%), 자녀문제(14.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17]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수록 부부갈등이 커졌다고 나타났고, 한국어 소통 능력이 좋으면 부부관계 만족도도 높지만, 한국어 소통 능력이 낮으면 이혼의사가 높다고 나타났[18]. Jeon 등[19]의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한국어 수준이 높으면 가족건강성이 높아진다고 하여 한국어 수준이 가족건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남편의 욕설, 무시하는 태도, 경청하지 않는 태도, 지시하는 태도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스트레스 작용하면서 가족건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등[20]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적응 경험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언어 및 생활양식, 사고방식의 차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편견을 경험하면서 가족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는 언어상의 의사소통 문제를 넘어 서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전반에서 주요문제로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의 문제는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무조건 한국문화에 적응을 강요하는 가족구성원들과 싸우기까지 하면서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족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일상생활에서 이를 스스로 터득해나가는 힘든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남편 및 시댁식구들은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거나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Yang 등[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 이주여성에게만 문화적응의 부담을 주기보다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차이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해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주 ‘자녀교육에 대한 욕심’에는 ‘육아방법의 견해차이로 멀어지는 가족관계’, ‘커지는 책임감’의 세 주제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경험의 구조를 보면 참여자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욕심이 있으나 육아방법의 차이로 확신이 없는 자녀교육을 하게 되나 자신보다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구사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한 교육 관련 정보 획득이 늦어지므로 남편에게 자녀의 아빠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기대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주여성에게 자녀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Yang 등[2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Cho [21]는 맞벌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의 인성교육에 시간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문화가정의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경험이야기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한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족건강성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안정된 시민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회적인 지지체계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범주 ‘설상가상’에는 ‘불화의 원인이 되는 돈’, ‘넘치는 불신의 올라미’, ‘고리 끊긴 친정’의 세 주제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스트레스,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었고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친절에 돈을 보태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불신의 늪을 경험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참여자의 친절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참여자

가 친절에 도움을 주는 것, 친절을 생각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고 있었다.

이 결과는 가정의 월수입 정도가 결혼이주 여성들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Park[22]의 연구결과와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중 경제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는 Choi[10]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Kim[17]의 연구에서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초기 가족들의 신뢰를 얻기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도주를 염려하며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경제권을 통제하여 다문화여성들은 집안에 갇힌 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불편함과 답답함을 겪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에게 도망을 우려해 자유를 주지 않고 친절에 돈을 보내 줄까봐 의심을 하는 등 불신의 눈초리를 온 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참여자들은 불신과 의심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탈출구로 친정가족에게 연락하려하나 친정부모에게 신경을 쓰는 것조차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가족이 참여자들의 친정가족을 무시하는 것을 느끼면서 친정과의 고리가 끊어져 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친정가족에게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마음이 아픈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등[2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친정가족이 그리움’은 본 연구결과와 일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서적인 안정이 가족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 결과는 결혼 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Choi[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주 ‘해결의 길을 따라 튼튼해지는 가족건강’에는 ‘자기성찰’, ‘같이 가는 길’, ‘탈출구’,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함’ 등 4개의 주제로 나타났다. Park[22]의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적응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 나타난 ‘한국살이에 적응해 나감’의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말 배우기를 열심히 하면서 한국살이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의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자기성찰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각 가족의 상태나 생활주기에 맞는 적절한 기능수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서 가족이라는 체계로서 적절한

기능을 잘 수행하여 가족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노력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족건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면서 가족건강성을 위협하는 경험들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친정과의 고리를 연결해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탈출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요구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Yoon[3]의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변인 보다는 부부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가족건강성증진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 여성의 가족건강성 경험의 본질과 그 구조를 이들의 관점에서 탐색, 기술함으로써 결혼이주민 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여성의 가족건강성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결혼이주민 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은 어떠한 경험인지를 알아보고자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자료는 결혼이주여성 1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Colaizzi 자료 분석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 건강성 경험은 4개의 범주로 ‘물과 기름’, ‘자녀교육에 대한 욕심’, ‘설상가상’ ‘해결의 길을 따라 튼튼해지는 가족건강’ 등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이 가족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해요인을 극복하고 자기성찰을 통해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가족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구조와 문화에 빨리 호

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인 지지체계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건강 불평등 경험에 대한 연구와 결혼이주민 여성 가족건강성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Y. H. Park,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ed migrant women", Korea Academy of Welfare Practice., Vol.5, No.1, pp. 87-110, 2013.
- [2] Statistics Korea, Married migrant present condition. <http://www.index.go.kr>. 2016.
- [3] S. J. Yoon, "Structural Model on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ed Migrant Women", doctoral dissert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2016.
- [4] H. S. Chung, Y. S. Kim, T. M. Yee, K.H. Ma, Y. J. Choi, G. P. Park, C. J. Tong, J. M. Hwang, E. A. Lee.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6.
- [5] Y. G. Yoo, I. S. Lee, S. K. Kim, H. J. Choi, "Development of Korea Family Strengths Scale(KFSS-II)".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 Vol. 31, No.4, pp. 113-129, 2013.
- [6] H. S. Kim, K. S. Kim, "A Study of Related Variables to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6, No.2, pp. 59-86, 2011.
- [7] H. Y. Seo, "Study on marriage migrant women's social support network, affect of family health to quality of life", master's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Daejeon, 2016.
- [8] S. K. Lee, "A Study on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Prediction Model for Marriage-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11.
- [9] J. H. Choi, "A Study of Stress and Family Strength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6, No.4, pp.29-46, 2011.
- [10] K. H. Kim, J. H. Choi, "A Study on Stress, Coping Style and Family Strength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23, pp. 29-49. 2011.
- [11] J. H. Lee, S. J. Jin, H. J. Ju, Y. S. Cho, "The Impact of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Language Ability, Self-esteem,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ir Family Health: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4, No. 1, pp. 87-98, 2013.
- [12] S. S. Seo, J. A. Back,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Ego-Resilience,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9, pp 301-310, 2017.
- [13]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1978.
- [14] D. L. Morgan,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1997.
- [15] Y. S. Lincoln and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1985.
- [16] S. K. Kim, Y. K. Kim, E. J. Joe, H. R. Kim, H. K. Lee, D.H. Sul, K. S. Jung, I. S. Sim, "A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2009", Ministry of Health & Welfare/Justice /Gender Equality & Famil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759>
- [17] O. N.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Family and Culture, Vol.18, No.3 pp. 63-106, 2006.
- [18] J. H. Lee, "Study on marriage migrant women's satisfaction with marital relations",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 [19] H. J. Jeon, S. H. Min, M. Y. Lee, H. Y. Choi, "Path of the Variables to Migrant Women's Families'Heal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4, No.2, pp. 5-27, 2009.
- [20] J. H. Yang, H. J. Park, S. S. Kim, E. J. Kang, S. H. Byun, J. S. Bang, "Adaptation experience to family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42, No.1, pp. 36-47, 2012.
- [21] M. Y. Cho, Mothers' Stories about Their Experiences on the Child's Character Education in Multicultural familyoma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3, No. 4,

pp.93-100, 2017.

- [22] B. K. Park,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Family Adjustment Process Experience in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 2, pp. 277-295, 2013.